

2021년 11월 28일

#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 가정예배순서 ♥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목상기도 하겠습니다.

### ◎ 목상기도(인도자는 시편 48편 1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시편 48편 1절]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찬 송 / 542(통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 성경봉독 / 베드로후서 2장 1~11절(신약p.385)

1.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2.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3.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4.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5.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6.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 (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
9.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10.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11.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 ◎ 말씀선포 /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의 특징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바로 사탄의 미혹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고 했는데, 간교한 것은 사탄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웃으며 삽시다./사랑하며 삽시다./감사하며 삽시다./축복하며 삽시다.

우리 가정의 소원을/ 영적인 자녀와 육의 자녀의 소원을/ 경제의 소원을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다. 창세기 3장 4~5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고 말하며 여자를 먼저 미혹합니다. 이처럼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타락시켰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미혹하여 이간질해 갈라놓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로 대표되는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왜곡시키며 성도들을 미혹하며 현혹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되어 믿음의 길을 떠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더욱이 성경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을 강조하며 오직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사탄의 미혹을 이겨야 함을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또한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의 특징을 바로 알아 사탄의 계락을 깨뜨려 미혹당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 1.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 본문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선포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도 않았으면 자기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4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라고 말씀하며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러한 일은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신약시대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요한이서 1장 7~8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심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함으로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파괴하려는 것은 사탄의 술수입니다. 때론 무력으로 핍박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나라에 더 큰 해를 끼치는 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16절에서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단들, 사탄의 도구로 성도를 미혹하는 그들은 다른 메시아를 주장하여 영혼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고 경고하며, 말세에 더욱 이러한 사탄의 거짓 역사와 이단들이 있음을 경고하며 성도들은 말씀 가운데 더욱 굳건히 서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베드로의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당시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온갖 이단들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고 말씀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의 진리를 반복해서 상기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더욱 사탄의 권세가 강하고 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며 현혹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고, 배우며 참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수많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읽고 묵상하며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감으로 오직 진리 가운데 서며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복음이신 예수를 붙잡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2. 이러한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은 오직 인간적인 탐욕을 추구합니다.

- 본문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의 특징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은 성도들을 현혹해 영혼을 망하게 할 뿐 아니라 재물을 갈취합니다. 그 재물로 탐욕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에 대하여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음은 멸망이요

웃으며 삽시다./사랑하며 삽시다./감사하며 삽시다./축복하며 삽시다.

우리 가정의 소원을/ 영적인 자녀와 육의 자녀의 소원을/ 경제의 소원을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19~20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천국에 재물을 쌓아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에 탐욕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단들은 물질을 축적하며 세상에서 바르게 사용되어야 할 성도의 헌금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단의 미혹에 빠진 자들은 잘못된 교리를 따라 행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자발적 표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금은 복음과 이웃 사랑을 위한 목적으로 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물질을 잘못 사용한다면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때론 교리적으로는 이단이 아니지만 행위로는 탐욕을 쫓는 이단의 길로 행하는 일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역시 탐욕으로 재물을 사랑할 때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재물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바르게 행하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3. 더 나아가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의 특징은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입니다.

- 본문에서는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를 예로 들며 그 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데 본문 7~8절에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뜻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고 했습니다. 이렇듯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가 정욕을 따라 음행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8절에서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합니다. 특히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므로 정욕을 따라 음행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들은 성령을 대적하기 위해 사람들로 음행에 빠지도록 현혹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음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발람 선지자의 계략에 빠져 음행과 우상 숭배를 행하다가 2만 4천 명이 영병에 죽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와 우상 숭배자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계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몸으로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말씀을 통해 물리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한주간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 찬 송 / 545(통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 ◎ 폐 회 / 주기도문